

LG, 막대한 적자에도 스마트폰 집중

사물인터넷·인공지능 등 차세대 먹거리의 리모컨 기능... 플랫폼 회사로의 '대약진 기회'·'도전'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이 막대한 적자를 보이고 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MC(무선)사업본부는 올 3분기에만 영업손실 4364억원을 기록, 모바일 기기 사업에서 사상 최악의 실적을 내면서 올해 적자규모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G전자는 그럼에도 스마트폰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핵심적 이유는 LG그룹이 차세대 먹거리로 고민하고 있는 사업들이 스마트폰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어서다.

즉 LG가 주목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등이 모두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과도기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는 스마트워치나 가상현실(VR) 기기를 봐도 스마트폰과 '뿔레야 뿔 수 없는' 관계다.

현재 애플과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는 물론 구글같은 IT(정보기술) 기업까지 AI 비서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람 말의 맥락을 이해하고 학습 능력을 갖춘 AI가 스마트폰 인터페이스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의 혁명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컴퓨터를 처음 썼을 당시에는 '커맨드 명령어'를 썼다면 이후에는 그래픽유저 세대로 바뀌면서 마우스를 쓰게 됐다.

PC를 중심으로 한 라이프스타일은 금세 스마트폰으로 옮겨갔다. 스마트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폰이 나오면서 터치 인터페이스로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다. 이마저도 AI를 바탕으로 한 음성명령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IT기업들로부터 수많은 러브콜을 받았지만 삼성전자의 품에 안긴 미국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AI) 플랫폼 개발사 '비브 랩스(Viv Labs)'의 최고경영자(CEO) 역시 이같은 패러다임을 주시하고 있다.

그는 지난 4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다 연결할 수 있는 '연결된 기술'을 만드는 것"이라며 "AI 플랫폼은 스마트폰을 시작으로 유저의 상황에 가장 알맞은 개인 비서 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의 발달과 AI가 맞물리게 되면 모호해져만 가고 있는 사업 간의 경계선은 더욱 희미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문제는 추후 방식의 변화가 이뤄질 수 있지만 당장은 스마트폰이 중심이 되는 한계를 벗어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당장 차세대 기술로 성장하고 있는 IoT만 봐도 스마트폰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리모컨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AI나 IoT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면 모든 라이프스타일이 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 온오프라인을 통합한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고 있는 셈이다. 제조사와는 거리가 멀었던 구글이 LG전자, 화웨이 등과 협업해 만든

'넥서스' 시리즈를 버리고 제품 디자인부터 생산까지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감동한 스마트폰 '픽셀'을 내놓은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반대로 삼성의 경우, AI 플랫폼 개발을 통해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플랫폼 회사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다.

글로벌 가전업체 2위로 강자인 LG 입장에서는 이같은 변화 추세가 '퀵텀점프(대약진)의 기회'인 동시에 '도전'일 수밖에 없다.

스마트폰 부문에서 계속된 적자로 '달레마'에 빠진 LG가 어떤 전략으로 현재의 위기를 타개할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1

이산화탄소·수소로 디젤 만든다

UNIST 이재성 교수팀, 값싼 신촉매 개발

유니스트(UNIST·울산과학기술원)가 이산화탄소를 디젤 자동차의 연료로 바꿀 기술을 개발했다. 이는 지난 4일 발표된 '파리기후 변화협약'에 따라 이산화탄소의 포집과 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번 기술 개발이 더욱 눈길을 끈다.

UNIST는 이재성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 교수팀이 이산화탄소를 수소와 반응시켜 디젤 자동차 연료로 만드는 신촉매를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신촉매는 값싼 구리와 철로 이뤄진 '델라포사이트(delafoosite)'라는 물질이다.

이산화탄소를 수소와 반응시킬 때 이 촉매를 쓰면 결과물로 디젤(액화탄화수소)을 얻을 수 있다.

기존 촉매들은 메탄이나 메탄올 같은 저분자 물질을 만들 수 있었다. 이들은 부가가치가 낮고 시장이 크지 않아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효과도 낮은 편이다.

이재성 교수팀은 이산화탄소와 수소의 반응 시 한 단계 반응만으로 디젤을 만들 수 있는 촉매 개발에 도전했다.

메탄, 메탄올, 디젤을 이루는 원소는 탄소(C)와 수소(H), 산소(O)인데, 이 물질과 촉매를 각각 다르게 조절하면 분자량이 큰 물질로 만들 수 있다.

특히 이 방식은 독일의 자동차 회사인 아우디(Audi) 디젤차보다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아우디의 경우는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로 변경하는 단계를 한번 더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번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바로 수소와 반응시킬 수 있어 공정이 더 간단하다.

이재성 교수는 "태양광으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얻고(인공광합성), 이를 이산화탄소와 반응시켜 디젤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개발한 기술과 태양광 물분해 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라며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 현장에 적용해 기술을 검증하고 수출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엘스비어(Elsevier)에서 발행하는 촉매 분야 최고 학술지인 '어플라이드 카탈리시스 B: 환경' 최신호에 게재됐다. /뉴스1

친환경차 질주... 하이브리드 중심 5만대 돌파

10월까지 총 5만3907대 판매... '니로' '아이오닉 일렉트릭' 이 시장 선도

올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차 판매대수가 5만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차 '니로' 등 완성차 브랜드들이 내놓은 친환경차 라인업이 선전하면서 국내에 친환경차 인기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7일 완성차업체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하이브리드(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전기차(EV) 등 친환경차 판매대수는 국내 완성차 4만1440대, 수입차 1만2467대 등 총 5만3907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내 친환경차 누적 판매가 지난 8월(4만2966대) 작년 친환경차 총 판매량을 넘어선 데 이어 사상 처음으로 연 5만대 판매를 넘어섰다.

국내 친환경차 자동차 시장은 2013년부터 두자릿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014년 3만5831대, 지난해 4만1959대 친환경차가 팔려 전년 대비 각각 20.7%, 17.1% 성장했다.

특히 올해 완성차 브랜드들이 친환경차 라인업을 늘리면서 본격적으로 친환경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국산 친환경차 판매량을 주도하고 있는 차종으로는 '니로'가 꼽힌다. 기아차가 지난 3월 출시한 하이브리드 SUV 니로는 지난달까지 1만5465대가 팔리며 전체 국산 친환경차 판매의 3분의 1을 책임지고 있다.

현대차가 6월 내놓은 전기차 '아이오닉 일렉트릭'도 지난 10월 판매량(349대)이 전월 대비 2배 증가하는 등 선전하고 있다. 한국지엠도 올해 말부터 하이브리드를 출시한 데 이어 내년엔 전기차 볼트를 내놓는다.

수입차 시장에서도 올해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68.8% 급성장하며 친환경차 비중이 늘고 있다. 하이브리드차, 전기차를 포함한 전체 친환경차 판매 비중은 지난해 3.9%에서 올해 6.7%로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늘고 있다"며 "업체들이 친환경차 라인업을 확충하면서 판매가 더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차는 국내 완성차 5580대, 수입차 1820대 등 총 7400대가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기아차는 하이브리드차 3619대, 전기차 472대 등 총 3619대, 르노삼성차 한국지엠은 각각 95대, 46대 등의 친환경차를 판매했다. 수입차는 하이브리드차 1780대, 전기차 40대가 팔렸다. /뉴스1

KT, 올레tv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서비스

KT가 IPTV 올레 tv에서 가상현실 콘텐츠 서비스 '올레 tv 360도 기가 VR'을 오늘부터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VR전용 주문형비디오(VOD)를 재생하고, TV리모컨으로 화면을 360도 돌리거나 확대 및 축소도 할 수 있다.

대표 VR 콘텐츠로는 KT가 독점으로

제공하는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 미국편', MBC 인기 수목드라마 '쇼핑왕루이 메이킹필름' 등이 있다.

올레 기가 UHD tv 가입자 누구나 이 서비스를 '360도 기가 VR' 전용관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더 생생한 몰입감을 원한다면 '올레 tv 모바일'을 통해 VR전용기기를 착용한채 콘텐츠를 즐기면 된다. /뉴스1

후사경 없는 자동차 나온다... 카메라모니터 설치

이르면 내년부터 후사경 대신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설치한 자동차가 출시될 전망이다.

또한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규제가 완화돼 도심 밀집지역까지 골목배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도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도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뉴스1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 주요내용에 따르면 후사경 대신 자동차에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기준을 완화한다. 이로써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는 종전 2.5m에서 3.5m, 최대적재량은 100kg에서 500kg로 바뀐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고전압전기자절연 안전성 국내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다. /뉴스1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